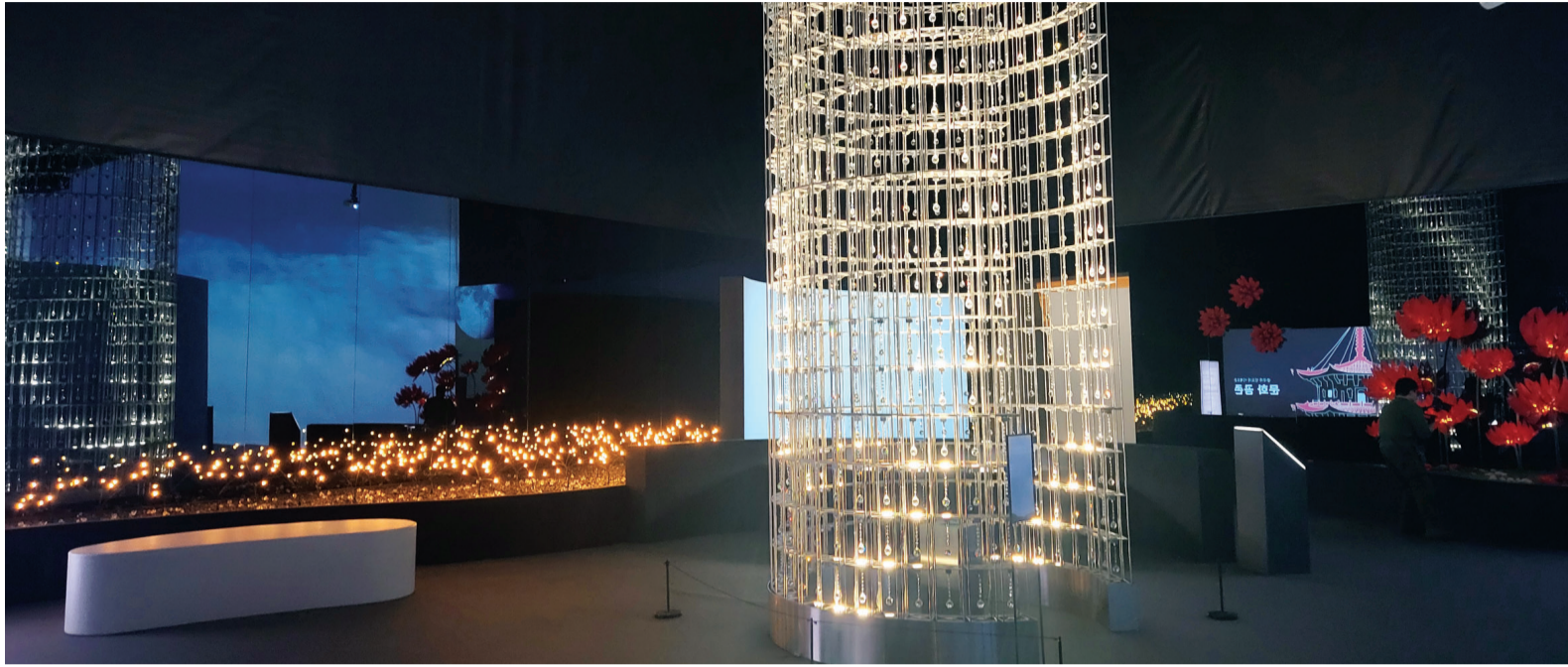


# 융복합, 건축, 현대미술을 한 자리에서 보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21일부터 융복합, 건축, 현대미술을 모티브로 한 3개의 전시가 열리고 있다. 사진은 복합1관에서 펼쳐지는 '해항도시 속 혼합문화' 장면.

### ACC, 3개 전시 개막 눈길 '해항도시 속 혼합문화' 아시아 건축 소재 '이음지음' 자연·인간 관계 '가이아의 도시'

스펙터클한 장면들이 시선을 압도한다. 남해의 어느 푸른 바다를 전시실에 옮겨온 것 같다. 한편으론 출렁이는 바다 영상 때문인지 마치 성경 속 흥취가 같아지는 풍경이 연상되기도 한다. 남실거리리는 파도가 영상을 넘어 실제의 공간으로 흘러넘칠 것 같은 느낌이다.

사람들은 곧잘 인생을 항해에 비유한다. 지금까지 수많은 예술 작품들이 바다와 항해의 의미를 조명했다. 바다가 지닌 생명력, 포용성 그리고 변화무쌍함은 인류의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21세기에도 바다는 인류의 미래를 책임지는 가장 중요한 천혜의 자원일 수밖에 없다.

해항도시와 문화를 모티브로 한 전시가 21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이강현, ACC)에서 개막돼 눈길을 끈다.

아울러 ACC에서는 아시아 건축을 소재로 한 전시 '이음지음',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모색해보는 전시 '가이아의 도시' 등도 함께 열린다.

먼저 복합1관에서 2024년 6월 16일까지 진행되는 '디어 바바노냐: 해항도시 속 혼합문화'는 주제가 말해주듯 해항도시와 연계된 문화를 미디어 아트 등으로 풀어냈다.

콘텐츠는 바다와 관계있는 도시들인 인도 코치, 말레이시아 말라카, 중국 취안저우를 바탕으로 구성됐다. 해항 도시는 새로운 혼합 문화가 태동될 수밖에 없는 천혜의 조건을 갖췄다. 상인들은 해로를 따라 해상교역을 펼쳤고, 그 교역은 문화와 문명의 교섭으로 이어졌다. 바다도시들은 확장과 변화를 거쳐 '혼합문화'를 꽃피웠고, 시간의 흐름에



셀레스트 부르시에 무주노 작 '클리나멘'

따라 또 다른 문화와의 혼종이 이루어진다.

주제에 담긴 '바바노냐'는 신화적인 용어다. 중국에서 이주한 남자와 말레이계 여자 사이에서 출생한 후손들의 후손들을 일컫는 말이다. 즉 서로 다른 지역의 문화의 결합을 '바바노냐'라고 칭한다.

전시는 이질적인 문화들이 서로 만나고 변화되고 전이됨으로써 혼합문화로 정착되는 여정을 바다를 매개로 초점화한다. 시간에 따라 지역에 따라 변화하는 바다의 모습은 문화가 지닌 본질적인 '흐름'이라는 요인을 떠올리게 한다.

전시기획과 박예원 학예사는 "이번 전시는 우리의 모습이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또 다른 바바노냐는 아닌지를 상징적으로 묻는다"며 "저마다 다른 문화, 문화권에 거주하더라도 상대와 타자에 대한 다름을 인정하고 조화의 가치를 숙고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복합2관에서 2024년 7월 21일까지 진행되는 '이음지음'은 미술의 언어를 매개로 아시아 건축을 돌아보는 전시다.

지음은 'construction'을, 이음은 'connectivity'를 의미한다. 전시는 아시아의 도시 경관들이 내재하는 공통적인 특징을 콘텐츠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으며 전통과 현재는 흐름을 매개로 공존한다는 데서 착안했다.

전시실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셀레스트 부르시에 무주노의 '클리나멘'이 눈에 띈다. 커다란 수조



ACC혼합현실작 '아시아 뉴토피아'

위에 등등 떠 있는 백자 그릇이 서로 부딪히며 발하는 소리는 부드럽으면서도 경쾌하다. 움직이면서 충돌하고, 이를 통해 또다른 에너지를 생성한다는 뜻을 지닌 '클리나멘'은 경계를 넘어 다양성과 새로움을 견인한다.

2층에서는 미래도시를 상상하며 콘텐츠화한 ACC 혼합현실작 '아시아 뉴토피아'가 눈길을 끈다.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한 삶에 대한 상상, 뉴토피아를 꿈꾼다. 공중에 매달려 있는 반원형의 조형물 위에 들어선 도시의 풍경은 그 자체로 이색적이다. 유기적으로 연결된 상상의 세계, 바빌론의 공중정원을 상징해 만든 '공중도시'가 미래의 어느날 눈앞에 나타날지 모른다.

세 번째 복합전시 3·4관에서 2024년 2월 25일까지 진행되는 '가이아의 도시'는 식물과 인간의 구도가 기본 바탕이다. 전시는 각각 자연과 문명을 대변하는 두 주제의 공존에 초점을 맞췄다. 알베르 1987의 작 '식물의 고요한 비명'을 비롯해 일본 유이치 히라코 작 '나무로 된 나무 28' 등은 상상에서 상상을 더해주는 작품들이다.

이강현 전당장은 "연말부터 내년까지 한꺼번에 각기 다른 3개의 전시가 개막돼 진행되는 만큼 많은 관객들이 방편해 수준 높은 전시를 관람했으면 한다"며 "해항과 건축, 현대미술 등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매우 밀접한 주제들"이라고 말했다.

/글·사진·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장휘랑 작 '내 마음속에 8색갈 무지개가 떴어요'

## 색깔의 다양성과 의미를 탐구하다

### 시민자유대학 '여덟 색깔 무지개' 전, 22일~1월5일 생각상자

색은 다양한 상정을 담고 있다. 범박하게 말하면 자연을 비롯한 세계는 모두 색으로 이루어져 있다. 색을 통하지 않고는 타자를 명확하게 인식하기 어렵다. 그러나 더러 색은 많은 것을 제한하고 편견을 부추기는 부작용을 낳기도 한다. 색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의미와 사유 등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색의 다양성과 아울러 보이지 않는 색깔을 생각해보는 전시가 열린다.

22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생각상자에서 열리는 '여덟 색깔 무지개'가 그것. 이번 전시는 시민자유대학(학장 이유미) 미술세 일환으로 기획됐으며 주흥 작가가 미술장작워크숍 나람미술캠프를 통해 지도를 했다.

전시에는 시민이 창작한 34점이 출품됐다. 예술인 외에도 교사, 학생, 건축사, 음악가 등 여러 직

업군의 시민들이 참여했다. 전시작도 회화를 비롯해 테라코타, 미디어 프로젝션 맵핑 등 다양하다.

주흥 작가는 "이번 전시를 통해 각계각층의 시민들은 자신만의 작품을 매개로 사회에 대한 다채로운 생각을 풀어낸다"며 "평소 알고 있는 색깔 너머에 더 많은 색깔이 존재한다는 것을 함께 인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자유대학 이유미 학장은 "우리는 보이지 않는 색깔을 포착하는 프리즘이 되려 한다"며 "이번 미술제가 세상에 의해 혹은 스스로에 의해 소외된 나를 나 자신과 타인, 그리고 세계에 연결해보려는 예술적 감성과 실천적 의지의 만남이 열리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해본다"고 밝혔다.

한편 오프닝 행사가 오는 22일 오후 5시 갤러리 생각상자에서 열린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한줌의 바람꽃 '새로운 시작'

### 아트그룹 바람꽃, 21일까지 아크 갤러리

바쁜 일상 속에서도 풍경화 사생모임을 매개로 창작활동을 펼치는 단체가 있다. 아트그룹 바람꽃은 아름다운 자연을 함께 관찰하고 함께 느끼며 이를 토대로 창작에너지로 활용한다. 바람꽃이라는 이름은 생소하지만 예술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바람이 불어 일어나는 꽃 모양의 바람처럼 확장성과 창발성의 이미지가 내재돼 있다.

바람꽃이 '새로운 시작'이라는 주제로 전시를 열고 있다.

21일까지 아크 갤러리에서 진행되는 이번 전시는 송지윤, 안태영, 유미란, 윤희경, 이금주, 이지선, 장연희, 전현자, 정소영, 정지호, 조하나, 천기정, 최용석, 최이루, 허정아 등 모두 21명의 작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회원들은 "큰 바람이 일어나려 할 때 먼저 너머로 보얗게 구름같이 일어나는 바람꽃처럼 한줌의 바람꽃이 큰 바람이 될 수 있게 정성을 다해 활동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전시장에서는 저마다 독특한 작품 세계를 추구하는 작가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김광례의 '화양연화'를 비롯해 김민이 '바라보다', 류미숙의 '사랑', 박규남의 '임어 꿈' 등 소재와 주제가 다른 작품들은 마치 흩날리는 바람꽃처럼 예술적 감성을 선사한다.

김민의 '바라보다'는 팬데믹 이후 새롭게 움트는 시작의 의미를 담았다. 파란 도자화병 안에 물과 연이 담긴 이야기는 그 자체만으로도 시작의 실재를 느끼게 한다. 김 작가는 "현재를 사는 우리의 이야기에서 희망을 찾아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긍정적인 미래를 설게해 보고자 했다"며 "연꽃이 야기로 마음의 평화가 있는 전시가 되었으면 하는



김민 작 '바라보다'

바람"이라고 말했다.

류미숙의 '사랑'은 오늘 우리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사랑의 의미를 임팩트하게 담아낸다. 어머니의 주글주글한 손 위로 흰 쌀밥이 고봉으로 담겨 있고 그 위에는 다양한 음식들이 계란에서 흘러내리는 모습을 형상화했다.

류 작가는 "내 삶의 원동력이던 어머니의 파스 한 음식들 갖 지은 흰쌀밥과 고등어구이, 달걀 후라이, 가지무침 등 여러 음식을 하나씩 기억 속에서 꺼내어 캔버스에 붓질하고 재료를 얹어 맛과 색으로 버무려 본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키즈국악캐럴 공연 장면.

(전남도립국악단 제공)

## 국악캐럴 '내가그린 성탄'

### 전남도립국악단, 23일 남도소리올림터

"지구를 위한 국악을 그린다"

지난 9월부터 전남도립국악단이 선보이고 있는 토요가무악회 시즌3 '그린국악'은 자연과 인간, 예술의 공생을 기치로 내걸고 실내악, 무용극, 창작 등 다양한 공연을 선보여 왔다.

전남도립국악단이 연말연시를 앞두고 그린국악 공연의 토요특별공연으로 국악캐럴 콘서트를 선보일 예정이다. '내가그린 성탄'이 오는 23일 오후 4시 남도소리올림터에서 펼쳐진다.

송병관이 구성한 송년 타악 앙상블 '타인공감'이 막을 연다. 국악 캐럴 '거기 너 있었는가' 등 국

악과 캐럴을 접목한 곡들도 올려 퍼즐 예정이다. 창작 판소리 '예수 탄생 대목'은 유형선 예술감독이 작곡했다. 어린이들을 위한 키즈 국악 캐럴 '축하해요 기쁜 성탄' 등의 곡들도 레퍼토리에 있다.

전남도립국악단 기주영PD는 "이미 널리 알려진 캐럴을 국악으로 표현하니 기대가 되며, 아이들과 함께 즐길 수 있어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보내게 될 거 같다"라고 말했다.

전석 무료.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 안중근 의사 유묵 경매

### 19억5천만원에 팔려

안중근(1879~1910) 의사 유묵이 국내 경매에서 19억5000만원에 팔렸다.

20일 서울옥션에 따르면 전날 서울옥션 강남센터에서 열린 경매에서 안중근 의사가 1910년 3월에 쓴 '용호지용세기작인묘지태' (龍虎之雄勢豈作刺刺之態. 용과 호랑이의 웅장하고 웅장한 형세를 어찌 지렁이와 고양이의 모습에 비교하겠는가) 유묵이 19억5000만원에 낙찰됐다. 구입자는 한국인으로 알려졌다.

이 작품은 일본인이 소장해 일본 교토에 있던 것으로, 국내 소장자에게 낙찰됨에 따라 110여 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다.

서울옥션은 "이번 낙찰가는 국내 경매에서 거래된 안중근 의사 유묵 중 최고가 기록"이라고 설명했다. 이전 안 의사 유묵 중 경매 낙찰 최고가는 2018년 서울옥션 경매에서 낙찰된 '승피백운지우제향의' (乘彼白雲至于帝鄉矣)의 7억5천만원이었다.

이번 경매에서는 이 밖에도 앤디 워홀의 '달라 사인'이 6억6000만원에 낙찰되는 등 총 53억원어치 미술품이 낙찰됐다. 낙찰률은 68%였다. /연합뉴스